

“연료 공급 중단 초읽기” 목포시내버스 운행 멈출 위기

연료비 대금 6억 여원 결제 수개월 지연...원유가 상승으로 한달 연료비 66% 증가
 업체 “감당하기 힘들어 버스 세울수 밖에” 목포시 “중단되선 안돼...방안 강구하겠다”

원유가 상승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내버스 연료비 6억 여원의 대금결제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CNG(압축천연가스)의 공급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 업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급증하는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익원에 달하는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가 파악한 금액만도 6여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차량은 147대 모두 CNG(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연료는 목포도시가스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연료비 등을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왔다”면서 “지난주 연료 공급업체로부터 공급 중단을 통보받아 시내버스를 세울수 밖에 없는 처지”라

고 말했다.
 목포시내버스의 연료비는 그동안 한달 3억 원 정도였으나 원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5억 원 대로 66% 크게 상승했다.
 반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연간 1360명에 이르던 이용객은 이후 980만명으로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운송가 용역 결과가 이번 달 말께 나오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지난해 대비 대외적 여건과 임금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송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에 근거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어려움은 목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라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줄줄 샌 광주 대동고 시험 답안 원본 파일에 비밀번호 안 걸었다

원본 파일 노트북 저장 금지·비밀번호 설정 지침 어겨

광주 대동고등학교 시험·답안지 유출 사건과 관련, 일부 교사들이 시험지 원본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8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한 대동고 2학년생 A·B군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일부 교사가 시험지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B군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시간대 대동고 본관 2·4층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대에서 중간고사 7과목·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답안지를 빼내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A·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 학교 측이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교사는 노트북에 시험지 원본 파일을 저장한 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교육청 고교 학업 성적 관리 지

침을 어긴 것이다.
 지침상 지필 평가 출제 원본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본 파일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하게 정하고 있다. A·B군은 실제 일부 교사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일부 과목의 시험·답안지 파일 원본을 통째로 빼냈다.
 이 과정에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교내 공간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보안 시설 작동을 멈춘 이후 재가동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68개 사립·공립고의 시험·정답지 관리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각 학교에 ▲노트북을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퇴근 시 창문 잠금 확인 ▲경비업체 방문망 재점검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A·B군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 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코드를 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문주란꽃 피어난 성산일출봉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을 광치기해변에 문주란꽃이 피어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도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 최대 30% 할인카드 지급

전남도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도내 지정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보는 카드를 발급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발급 대상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시·군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7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도내 병원, 미용, 안경점, 식음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최대 30%까지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로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반납 유도를 위해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업체를 발굴해 카드 할인 혜택을 주는 시책을 신규로 마련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운동신경과 판단력 저하로 운전대 조작이나 인지 반응 속도가 둔화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책을 추진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사망자 수가 연평균 10% 이상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8년 30%에서 2021년 말 34%로 증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하계 휴가로 다음호 8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